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7, 사도행전 16-1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17회기, 사도행전 16장과 17장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바울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던 소녀에게서 매우 강력하고 맨틱하며 신성한 영인 파이썬(Python) 영을 쫓아냈습니다.

때로는 많은 문화권과 많은 집단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어디에서나 악마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3세기에는 유대교에 널리 퍼졌는데, 일부 랍비들은 한 손을 내밀면 천 명의 악마를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왼손을 내밀어 만 명의 악마에게 내보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진리의 영이나 오류의 영에 의해 모든 행위가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그런 정도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정신이 있어서 이를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의 영적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인하여 근심하였나니 이제 그 여종의 점을 쳐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치안판사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누군가를 법정에서 세우고 싶다면 그들을 법정에서 초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루크는 행복하게도 여기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와 디모데는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 대해 제기할 비난은 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비난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아, 그들이 우리 여종을 영혼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글썄요, 그런 법적 기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당신이 우리 재산을 손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낮은 공통 분모로 가서 이 치안판사들 앞에서 매우 기본적인 혐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치안 판사라는 칭호인 스트라테고이는 라틴 듀오 비리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 칭호였습니다.

이들은 빌립보의 두 로마 관리입니다. 라틴어에서는 praetor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은 군중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어 아고라(Agora)인 것 같은데, 그리스어의 상업 아고라(Agora)는 아닙니다. 여기는 빌립보 근처 중앙 아고라가 발굴되어 로마 포럼으로 기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들이 시련을 겪게 되는 곳입니다. 도시의 상업 아고라가 아니라 중앙 아고라입니다.

크기는 230피트 x 485피트, 즉 70미터 x 15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빌립보를 관통하는 이그나티아 경유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제기된 비난은 '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인 우리에게 불법적인 풍속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의 청중은 바울의 이름이 바울이기 때문에 적어도 힌트는 갖고 있을지라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무언가를 추측하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실에 들어와 민족성이나 젊음 등의 이유로 그런 사람이 관리인이고 수업 첫날의 교수라고 가정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나를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다고 느껴져서 좋았는데, 그걸 경험하려면 이제 흰 수염도 깎아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로마 대조가 있고 그것은 고대의 많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인 고대 반유대주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언급된 클라우디우스의 법령은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었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추방했습니다. 확실히 알렉산드리아에는 주요한 반유대주의, 주요한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쎄,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고 만약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빌립보에서 가장 편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의 주요 불만은 그들이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나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이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건물 안에 불이 붙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건물 밖으로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들을 불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적어도 화재에 대해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졌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행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적절하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혐오증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때로는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많은 원주민이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주자였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부에서 온 다른 이민자들이 그곳에 정착했고, 이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특히 쉬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빌립보는 매우 로마화되었고 로마 유산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이 균형을 정말로 자극할 만한 것이었죠. 그리스 북동쪽 마케도니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의 80% 이상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은 로마의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한 조공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역 헌법은 로마 헌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다움에 매우 빠져 있었습니다. 22절에서는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구타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 구타를 강압이라고 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재판 전에 구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층계층의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타당할까요? 그런데 채찍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때때로 채찍으로 맞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가 언급한 유일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일어난 일, 곧 그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는 *Lictors*의 막대가 될 것입니다.

릭토르(Lictor)는 로마 치안판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대를 묶음으로 가지고 다녔고, 이 막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공개 구타나 다른 종류의 공개 징계 이전에는 옷을 벗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옷을 벗는 것과 공개적으로 구타하는 것은 둘 다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알몸으로 보이는 것에 매우 민감한 유대 민족과 서아시아 민족, 중동 등의 사람들에게는 별거벗은 모습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굴욕적인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4절까지에서 우리는 감옥 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절에서 간수장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글쎄요, 그는 그것들을 매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들을 빛이 없는 깊은 감옥에 가두시느니라. 그는 주식으로 그들을 확보할 것입니다.

내 말은, 어쨌든 그들이 내부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지만 주식이 정말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도소장, 일부 평론가들은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가 베테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여러 세대에 걸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처음에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퇴역 군인의 후손일 수 있지만 그 자신은 퇴역 군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도소장이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투옥되었던 이 장소는 고대에는 재활 장소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신이 창고에 있었다면 당신이 있던 곳으로 갈 것이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청소하지 않는 한 당신도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 맞아도 맞고 상처도 생기고.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둘러싼 오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추울 것입니다.

바닥에 묶여 있으면 더욱 악화됩니다. 23절입니다. 24절에서는 나무 받침을 바닥에 고정해야 했습니다.

개머리판은 그들이 당신을 넣을 것이고 당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원할 경우 당신을 더욱 고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다리 개머리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다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할 경우 다리가 고통스러운 위치에 강요될 수 있도록 개머리판에 여분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확실히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1625년에는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스-로마 철학자들은 또한 한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지혜를 칭찬했으며,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에게는 그것이 어쨌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유익한 사고 방식이었지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과 다른 사람들이 투옥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아신다면,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죄수들의 반응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른 죄수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바울은 몇 구절 후에 그들 모두를 위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응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개종했거나 그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확실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정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대개 잠이 드는 중간이었다. 그 때는 유대교에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1절과 62절에서 박해를 받으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4장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Pseudo-Philo의 성서 고대 유물인 617년에 지진으로 인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유대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하게는 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진을 신의 활동, 종종 심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종종 그것을 땅을 흔드는 자이자 바다의 신이라고 불렀던 포세이돈에게 돌렸습니다.

게다가 빌립보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우연히 유대감을 잃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사용하여 밤에 바다를 밀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신성한 활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지만 그들의 유대는 모두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진으로 인해 감옥에서 탈출한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1년 터키, 2013년 아이티, 2013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해 감옥 탈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히 사도행전 16장의 신성한 활동이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에 의해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제 Paul도 풀려났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터는 풀려났고 경비병들은 처형당했습니다. 풀은 풀려나지만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의 상황은 베드로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피터는 떠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잘 풀릴 것입니다. 16장 27절에 자살이 좌절되면서 처형은 죄수들을 탈출시킨 데 대한 형벌로, 특히 사형의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대한 사건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한, 모든 죄수들이 탈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깨어난 것은 반드시 근무 중 잠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침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간수장이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를 위해 일하는 하인이 있는데 아마도 공무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들어가도록 등불을 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옥 바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문이 부서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도 자고 있었을 경비원들로부터 그가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인들은 자살을 처형에 대한 고귀한 대안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타키투스는 처형당할 예정이었던 메살리나가 겁쟁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칼에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귀한 대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청중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요세푸스는 때때로 그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고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특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 신학을 따르는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으로 자살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해결책이나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급하게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한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칼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잠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고 그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으며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Paul은 머물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쿠리오스는 누군가에게 직접 말할 때 호칭으로 주님을 뜻합니다. 쿠리아 . 선생님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주님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주님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그를 바로잡습니다.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주님, 참된 큐리오 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누가복음의 여러 부분,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균종과 함께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묻지 않고 질문으로 표현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종이 선포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글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당신의 집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로마인들은 온 집안이 가장의 종교를 따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문화에서 그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이 그의 가족을 로마 신을 숭배하도록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 그는 그들을 씻은 다음 세례의 물로 그를 씻었습니다. John Chrysostom이 오래 전에 매우 설교적인 방식으로 지적했듯이, 저는 그것이 여기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들은 세례의 물로 그를 씻어줍니다.

자, 그들은 어디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빌립보에는 갈 수 있는 곳, 공공 분수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집

밖은 물론이고 감옥 밖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안뜰에 분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가 전형적인 로마식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이 부유했다면, 임플루비움(impluvium)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논평에서 언급을 게을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배웁니다. 새로운 것들.

방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임플루비움(impluvium)과 그의 아트리움에 있는 물웅덩이는 로마 주택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누구든지 그를 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아마도 지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6:20과 21을 고려하면 간수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세푸스에서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실제로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지지하여 티베리우스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티베리우스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지지하여 곤경에 처했던 때를 읽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간수와 백부장도 그들을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티베리우스가 죽고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아, 이 사람은 다음 황제와 사이가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아그립바에게 정말 친절하고 식사도 함께 합니다. 비록 그가 간수이고 백부장이지만 아그리파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소문은 틀렸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글썄, 그는 즉시 아그리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이 아그리파와 대화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래, 결국 티베리우스는 죽었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얻었을 모든 호의를 잃었습니다. 죄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규약 위반이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가 말한 것은 모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단지 '아 그래,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다거나, 마오쩌둥이 살았다거나, 다른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거나, 스탈린이 살았다거나, 처칠이나 루즈벨트가 살았다고 믿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살았다.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청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될 필요는 없고 앞으로 될 모든 것이 즉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초대했습니다. 그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면 나도 영접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일꾼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먹이를 주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게 하세요. 글쎄,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는 그들을 참 주님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에게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고 그들은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감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만 나가서 유대교 음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그는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는 그들의 문화적 취향 등의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이 이방인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글썄요, 그가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대접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코셔식으로 준비된 음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35절과 36절을 보면 왜 다음날 아침에 관원들이 와서 이제 가도 된다고 합니까? 글썄, 아마도 지진은 그들에게 신호였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제 우리가 내린 결정 중 하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경우에도 지진이 발생했지만 감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원주민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리디아의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다지 많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설득할 돈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정치인들이 군중 앞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 개인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아니면 공개적인 굴욕은 경고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떠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로마 시민들을 구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간수는 그들에게 빌립보에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이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알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Paul이 방금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나중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서 그들이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단지 비명을 질렀고 폭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로마 시민권은 매우 높은 지위의 표시였으며, 특히 아직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동부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시민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시민권 서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에 있는 바울에 대한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석방될 예정인 경우,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귀하가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형당할 위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의 가족은 아마도 해방된 로마 노예의 후손으로서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앞서 2세기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1세기에 많은 유대 사람들을 로마의 노예로 데려갔다고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돈을 모아 자유를 샀고, 로마 시민의 해방된 노예로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 로마 시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또한 로마를 떠나 로마 세계의 다른 곳에 정착했거나 사도행전 6장과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만간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리베르티니 중 일부는 다른 곳에 정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글쎄, 바울의 가족은 아마도 해방된 노예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리아누스 법은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구속하거나 사슬로 묶거나 쇠사슬로 묶거나 구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빌립보에서는 시민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제는 시민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글쎄요, 바울의 시민권에 대해 몇 가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대해 더 회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글쎄,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글쎄, 침묵의 논증은 얼마나 강력한가?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시민권에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다지 강력한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때에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7절과 30절에서는 그가 빌립보 교회에 회신하는 글을 보면 그 교인 중 많은 사람이 간수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 당신도 내 재판의 결과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다른 로마 시민에게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의 궁정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례가 될 것이며 따라서 빌립보에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의 서신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주장에 회의적인 일부 학자들은 누가는 바울의 높은 지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Paul의 높은 지위를 확립하고 싶어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바리새인주의는 유대 상황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 자신은 자신이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글쎄요, 그들은 또한 시민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증거를 잘못 읽었으며, 증거를 매우 나쁘게 잘못 읽었습니다. 에베소의 비문에는 1173명의 로마 시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노예로 해방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로마 노예가 로마 시민이 되었지만, 로마 동부의 비식민지 관리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로마 시민인 유대인들은 이교 관습에 참여해야 하므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짓입니다. 로마 유대인 비문에 나오는 요세푸스는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필로는 로마에 전체 유대인 로마 시민 공동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 사도행전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단순히 꾸며낸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들이 회의적일 때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줍니다. 다섯째, 바울은 비문과 달리 자신의 편지에서 로마 시민의 세 이름인 트리아노메나(trianomena) 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공식 문서에만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비문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그리스와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그리스어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50개의 유대인 로마 시민 비문 중 로마 자체에서 유대인 로마

시민을 위한 비문 중 어느 것도 삼위일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0%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문에 호소하며 편지는 비문이 아닙니다. 플리니우스는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 계급에 속합니다. 그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귀족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 중 한두 개만 사용하고 세 개는 사용하지 않고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신은 종종 편지에서 하나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이 시민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더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채찍으로 맞았다고 보고합니다. 시민들은 막대기로 구타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민권을 신고한 누가도 그러한 구타를 당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루크는 시민들이 채찍으로 맞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Varys와 다른 주지사들은 알려진 시민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곳에서 그러한 구타를 가했습니다.

유대 총독 플로루스는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병들에게도 이런 일을 가했습니다. 즉, 유대 총독이었을 때 일부 총독들이 공유했던 로마 기사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좋은 주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주장은 아닙니다.

그럼, 구타당하기 전에 시민권을 밝히는 게 어때요? 그렇게 되면 사건이 더 나쁜 평판을 받으며 장기간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반박하고 말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외국 관습입니다. 공무원은 Tarsus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관리들은 마침내 그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법을 어긴 후에는 바울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방 유대인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갈리오와 함께 경험하기 전까지, 또는

빌립보 간수가 빌립보가 다른 곳보다 이러한 일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에게 알릴 때까지 입증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누가 그것을 언급하고 누가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지지하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어야 하지만 다른 논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의 이름은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특별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한 가톨릭 학자인 피츠마이어(Fitzmeyer)의 주장이지만, 무신론자 신약학자인 가렛 루드먼(Garrett Ludeman)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것을 선호합니다.

거의 항상 Paulus는 비문의 별명입니다. 그것이 부칭(이름)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의 재사용된 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별명을 따르는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존경할만한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증명하지는 않지만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이름을 어디선가에서 따온 것인데,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둘째, 오직 시민만이 황제에게 호소한 후 로마로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 시점에서 언택트를 뒷받침 하지만, 그의 모든 편지는 이 일이 발생한 시점 이전이나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둘 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빌립보서가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에 따르면 아마도 빌립보서 1장부터 바울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로마의 구금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는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글썄,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는 유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으나 결국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여행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로마의 구금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이, 누가는 필요 이상으로 유대에서 더 일찍 시작되는 긴 로마인의 보호를 거의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슬과 로마인의 보호는 문화에서 부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나 로마에 구금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로마식 양육권을 고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필요보다 일찍 그것을 고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4분의 1을 허구에 기초하여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상소하지 않는 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4분의 1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로마로 보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세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격자와 함께하는 우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아마도 로마 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누가가 암시하는 정보는 그 주장에 부합합니다. 그는 앞서 다소(Tarsus)를 포함한 길리기아(Cilicia)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해방된 사람들의 회당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을 위한 노예 배경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풀의 배경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해방된 사람으로서는 아닐 것이다. 만약 명예로운 배경을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지방 귀족의 몇몇 상류층 유대인처럼 서구 계급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노예 배경을 꾸며내지 않았고, 문맥상 암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심지어 바울을 회당의 일원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뒷받침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로마 시민에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특히 로마 식민지를 표적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로마 자체로 가고 싶어합니다. 바울의 로마식 이름.

이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미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울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이중 이름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파피루스와 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종종 아람어 이름과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은 로마 이름인 시그눔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로마식 이름은 이 트리아노 메나(trianomena) 입니다. 그 기호는 아마도 그의 이름인 사울일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기호가 사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름은 종종 의미를 번역하거나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trianomena , nomen은 계승된 씨족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클랜을 식별하는 이름이었던 프레노멘은 약 30개 정도 사용 됩니다.

앞서, 장로 세네카가 자신이 들었던 순서대로 정확히 2,000개의 이름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글썄, 그는 작업할 수 있는 이름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후기 공화국에는 이 중 절반만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코그노멘은 제국 초기에 후기 공화정에 의해 새로운 구별명이 되었다. 바울은 제국 초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그노멘은 별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국에서는 주요 식별 이름이었습니다.

종종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별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만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행정관들은 바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38년

키케로(Cicero)와 퀸틸리안(Quintilian)은 한 로마 시민이 채찍질 중에 자신이 시민이라고 소리쳐 압제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매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바울과 실라는 행정관들을 법적으로 난처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쇠사슬에 묶인 뒤 구타심문을 받게 될 때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건 다른 종류의 구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강박 이었고, 그때 풀이 좀 더 나이가 많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구타는 어렸을 때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도들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아닌 치안 판사들이 협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라는 용어를 보통 열두 제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는 예외를 두고 이를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보통 그것을 12명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이 제목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업이나 다른 종류의 획기적인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협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치안판사님.

법이 집행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고는 심지어 그들의 직위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나 이와 유사한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이 문제를 언급합니까? 예수님께서서 다른 쪽 뺨도 내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왜 자기들의 명예를 염려합니까? 그들은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고, 이것이 그들을 적어도 어느 정도 더 나은 상황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만큼

박해가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루디아와 같은 돈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간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9, 40절. 치안관들은 그들을 때릴 법적 권한도 없었지만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추방할 법적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들 자신의 법률 위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음, 루크는 긍정적인 결과를 좋아해요. 우리는 매우 힘든 일을 겪은 뒤에도 루크의 행동에서 그런 점을 많이 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방당하고 여전히 구타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매우 긴 산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리디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직접 떠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몇몇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관리들이 호위해서 나가야 하고, 관리들이 가지 않아도 스스로 굴욕을 주고, 겸손해야 했기 때문에 수치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매우 긴 산책을 한 후 갈 다음 장소는 데살로니가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소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중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함. 빌립보에는 정말 좋은 배경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대학의 제프리 와이마(Jeffrey Wyma)는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에서 정말 좋은 일을 했으며 다른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에서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자체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Donfried, Jewett 및 다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와 다른 장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글쎄요, 17장 1절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들의 여행에 대해 읽었고 그것은 매우 빠르게 요약되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아주 빨리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곳에 도착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거쳐 발칸 반도의 서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비아 이그나티아를 따라 여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언급된 서로 다른 세 도시로 왔습니다. 첫 번째는 Strymon 의 Amphipolis입니다 . 그것은 내가 앞서 언급한 강이며 그 지류는 Gangites 였습니다 . 암피폴리스는 빌립보에서 33마일, 즉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처로 인해 하루에 전혀 걷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 만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매우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20마일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것입니다. Apollonia는 Amphipolis를 넘어서는 하루의 여행이었습니다.

27마일, 즉 약 40km가 더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35마일, 즉 55킬로미터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여러 날이 요약되어 있는데 누가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빨리 이야기하는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약해야 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 는 발칸반도 서쪽 끝에 있는 일리리쿰(Illyricum)까지 더 서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베뢰아로 가는 이 길을 벗어나 남쪽으로 바울이 향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나중에 일리리곤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매우 빠르게 요약된 여정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는 그곳으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도로. 로마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폭이 20피트 또는 6미터를 넘지 않았는데, 현대 도시 기준으로는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교통 체증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1850년까지 대부분의 유럽 도로보다 더 좋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항구였으며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옛 마케도니아 제2구역의 수도였지만 지금은 더욱 중요한 곳이 바로 지방 총독의 관저입니다.

주지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역 문제입니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카에는 주민이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고대 기준으로 볼 때 주요 도시였습니다. 17장 2절에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회당. 데살로니가에 헬라어가 아닌 이단이나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입증되었으며, 고고학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세라피스(Serapis)와 이시스(Isis) 숭배는 이집트의 숭배였습니다. 그리스인이었지만 키 베리의 신비인 사모트라케 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그곳 회당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서 4장, 15장, 16장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숫자를 합산하면 기억할 것입니다.

약 95마일 또는 14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한동안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약간의 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풀이 하고 있던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약간의 자금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그때까지 그는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마도 한동안 거기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3주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보다 더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문한 다음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들이 이미 믿었던 것을 옹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7:4. 마케도니아 여성들은 이전부터 영향력이 있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특히 그녀의 권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올림피아스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상류층 여성은 교회나 회당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류층 지위와 기부금은 그들을 매우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사회 전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환경에 관련된 상류층 여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종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누가는 빌립보 이후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개종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자기 고향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 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본문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한 행위입니다.

제외되었다는 문자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두 곳 모두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것은 고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폭도들을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매우 무시당하면서도 시장에서 게으른 실업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실직이 항상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들은 단지 시장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도시의 문제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읽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고대 사례가 증명하듯이 그들은 폭도 행동을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주민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글썄요, 이 폭도들은 선동하여 시위, 국민, 시민 단체보다 먼저 왔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달리 로마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더 큰 도시였고 자유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로마에 복종해야 했지만 그들의 도시는 그들만의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도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도시에는 그들만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사법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단체인 데모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폴리타크(polytarchs) 라고 불리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관리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목록은 없었지만 누가는 항상 지역 관리의 직함을 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를 올바르게 이해 했습니다.

폴리타르코스(Polytarchs)는 마케도니아, 특히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Paul이 곤경에 빠지게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Paul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호스트를 끌어들이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의 주인은 아마도 그를 그의 집으로 맞이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유대인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고 아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야손은 헬라식 일반적인 이름이기는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Argonautica와 그 이전의 전통에는 Thessalonica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Thessaly의 Jason이 있습니다. 제이슨은 일반적인 그리스 이름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함께 머물렀던 유대인 호스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물론 많은 관료들조차 해볼 만한 것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행정부는 그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런 일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사람은 바로 현지인들이었다. 이 경우 그들은 데살로니카의 폴리타르코스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문제입니다.

Deletorius 와 Deletorius는 고발자 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누군가는 사건을 기소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3절).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는 또 다른 왕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황제와의 정치적 경쟁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다지 큰 경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역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왕을 선포하는 것은 황제의 위엄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로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은 현재 황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칙령을 어겼기 때문에 점성술사들은 때때로 로마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혜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 그건 새로운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말하죠. 로마에서 나가세요. 여기서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통치자를 찾게 만듭니다. 글썄, 당신은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읽고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 중 일부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왜곡하여 그가 또 다른 왕, 곧 예수를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선동으로 인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23장, 특히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0장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반역 행위가 있으면 신고해야 했습니다. 글썄요, 이것이 어떻게 군중을 선동하고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의 애국심, 일종의 국가주의적 충성심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이상한 신들을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17장 18절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에는 폴리타르크(Polytarchs)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도시 관리들을 가리키는 정확한 명칭인 6절에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실상 마케도니아로 제한됩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도시를 운영할 자유를 주었지만, 동부 지중해의 지방 관리들은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을 강요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궁극적으로 로마에 답변해야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주인인 6절의 야손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그들이 그의 가족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법원에 따르면 벌금은 꽤 관대한 처벌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채권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7절의 혐의를 고려할 때 바울 자신도 잡혔습니까? 군중 앞에서 폴리타르크의 관리들은 때때로 정의보다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처형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야 했고, 어쩌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죄목이었으며, 그가 신자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처럼 매를 맞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폴리타르크는 처벌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폴리타르크스의 결정은 그들이 퇴임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과 다른 신자들 때문에 그들은 아직 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료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오고 싶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그들이 직위를 떠날 때까지 그 법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는 다음 도시에서 더 나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까지입니다.

그는 구타당한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앞서 세 바스트 가도에서 내려 데르 베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그네시아 가도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17회기, 사도행전 16장과 17장입니다.